

# 첫해 진군부터 신심드높이

지금 새해의 힘찬 진군을 벌리고있는 공화국인민들앞에는 새로운 승리의 밝은 길이 활짝 열려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총화하시고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혁명정세에 립각하여 국가경제도대의 재정비와 발전 그리고 국가사회제도의 공고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올바른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밝혀주시었다.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전진을 저해하는 주객관적 요인들과 심중한 결함들이 분석총화되고 당과 국가사업전반을 혁신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행시키는 데서 나서는 명확한 투쟁과업과 방도들이 밝혀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공화국인민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다 선명하게,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며 더욱 확실해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

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방략들에 기초하여 곧바로 나아갈수 있게 되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첫해부터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잘 짜고쳐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인민들의 양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시려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새로운 5개년계획은 구래의연하고 진부한 모든것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지금 온 나라인민들은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지켜보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올해작전도, 설계도인 계획작성에서 나라이는 편향들을 전면적으로 분석비판하고 인민경제부문들앞에 나서는 과업,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 3일간에 걸쳐 하신 보고에서 올해에 공화국의 인민들앞에 나서는 투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이에 립각하여 공업, 농업, 경공업, 건설분과로 나뉘어 분과별회의들이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올해 각 부문별사업방향과 전진목표들의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이 충분히 반영된 결정서가 채택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면서 본 전원회의에서 도의된 하나하나의 의제들은 우리 혁명사업과 당의 강화발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당 제8차대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들

에게 당대회가 결정한 변혁적 과업들을 반드시 현실로 전환시키려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와 강력한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보여주었다고 언명하시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명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확정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느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새우신 밤은 얼마이며 바치신 로고는 그 얼마였는가. 끝없는 사색과 헌신으로 공화국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도 사랑하는 인민에게 우리의 충정을 곁얼반을 때가 되었다고 하신 그이의 진정어린 말씀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인민의 아버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긍지를 다시금 페부로 절감하였다.

하기에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기어이 완수할 열의를 안고 각오와 지향, 사고방식에서의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잠도리를 단

단히 하고 치밀한 작전과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으며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인 근로자들은 올해의 힘찬 진군길에서 영예로운 혁신자로 자랑떨치기 위하여 하루계획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다.

내각에서는 모든 생산단위의 경영활동을 수자적으로 정확히 장악하는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경제부문들간 유기적연계와 협동을 강화하는데 주목을 돌리고 작전을 심화시키고있다.

진정 새해 정초부터 순간의 휴식도 없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헌헌신으로 새로운 전진과 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공화국인민들은 그 어떤 침체나 답보도 모르고 사회주의 새 승리를 향한 첫걸음을 크게 내걸고있는것이다.

리영수

## 인민을 위한 별사복무의 길에서

### 승고한 정치리념과 리상

주제106(2017)년 5월 어느날이던... 인민생활향상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복리증진에 늘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부무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나의 정치리념이며 나의 정치는 철두철미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정치라고, 나는 모든 사색과 활동을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철저히 지향시키고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 한 인민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나의 리상이라고, 온 사회가 단합되고 인민들모두가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었다.

### 인민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네해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새로 꾸린 이불생산현장을 돌아보시며 제품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당의 경영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영공정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인민들의 마음을 떠나 우리 당 경영정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싫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제품, 인민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면 누구도 우리 당 경영정책이 옳다고 말하지 않게 된다고, 경영공정장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질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갈 의지에 넘쳐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과 전진의 실천강령에 무한히 고무되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펼쳐주신 설계도따라 주체위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는것은 온 나라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열의이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전진길에 펼쳐나신 공업부문에서는 온갖 가능성과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은 단계로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서 나라의 만아들기실을 다하려는 용기와 자신심을 안고 중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선철과 강철, 규소철, 자철정광, 갈철피광, 내화벽돌, 전극 등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화학공업성 일군들도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면서 현행생산계획과 단계별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와 대책들을 탐구하고있다.

기계공업성에서는 란광, 광산들에 보내줄 채취설비를 현대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작전안들을 세우고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탐사와 굴진에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기 위한 보장전략을 세우고 확보량량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더 많은 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모를 막고 올해 중심목표를 편성하였다.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는 전투장마대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끊이지 울려나오고 있다.

《오늘의 당대회결정관철전은 조선로동당의 존엄사수전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기적과 위훈을 아로새기겠다.》

...

조국망 그 어디에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인민의 이불같은 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나라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를 매일, 매 순간 심장으로 절감하며 그이만을 따르는 길에 찬찬한 미래와 번영이 있음을 신념으로 체득한 공화국인민이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기어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놓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황금속



# 세기를 이어 높이 울리는 총성의 노래

### 인민이 심장으로 더친 위인송가

노을이 피어나는 이른 아침에 인자하신 그 미소를 생각합니다

...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장중한 선율이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다.

금시라도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빚는것만 같고 귀가울리면 장군님의 우렁차우렁하신 음성시 들려오는것만 같아 누구나 솟

합창 《대를 이어 총성을 다 하릅시다》도 있었다.

독출한 예술적천품과 비범한 령도적수완에 대하여 실지 체험을 통해 잘 알고있던 예술인들은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친에 하는 지도자》로 칭송하며 따랐다.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 나신분》, 《문무를 겸비하신분》,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신분》, 《한없이 겸손하시고 소탈하신분》...

사람들은 모여있으면 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인민들의 마음은 자나깨나 그이께로 달려갔다.

이러한 열렬한 흠모심과 친애하는 그이를 대를 이어 총성으로 높이 받들어야만 하는 인민들의 순결한 사상감정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곡

이 되어 나온것이 바로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 하릅시다》이다.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그리는 인민들의 열렬한 사상감정과 이에게서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끝없는 사랑 그리고 비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쳐온다 해도 오직 한마음 장군님께 대를 이어 총성다하려는 인민들의 감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가 명곡이 되고 노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지게 되는것이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 하릅시다》를 들으며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 대를 이어가는 총성의 한결

지난해 10월 경애하는 김정 원수님께서는 75돛경축 조선로동당창건 75돛경축 연명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가장 강조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헤쳐나 우리 당이 이 피어린 령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울수 있는 근본비결은 다름 아닌 우리 인민이 당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따르며 우리 당의 위업을 지켜주었기때문이라고 하시었다.

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고마워했지만 정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하시며 고마움의 인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인민이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수령을 우러르며 따르는것은 너무나도 웅망한 것이다.

하지만 위인칭송의 마음은 분출하는 용암마냥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노래는 온 나라에 급속히 퍼져갔다.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 하릅시다》는 이처럼 인민이 짓고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 전인민적송가인것이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가 명곡이 되고 노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지게 되는것이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 하릅시다》를 들으며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수령님만을 믿고 전쟁의 승리를 굳게 확신한 인민이었다.

수령을 자기 운명의 아버지, 태양으로 따르며 일원단심 받들었기에 수령이 대고조를 호소하면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고 수령이 대건설을 펼치던 속도로 화답했으며 령도자의 결심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실천하였다.

령도자를 따르는 이 나라인민의 믿음은 시련과 역경속에서 다져졌기에 억년들지 않을 확고부동한것이다.

류레없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던 지난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다.

년초부터 한해가 저물도록 지속된 세계적인 보건위기, 러시아어 들이닥친 자연재해...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과 의지를 심장마다에 간직한 인민이기에 역적같이 변치 않고 일어나 당과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랐다.

지난해 9월 혹심하게 파괴된 함경남도의 태풍피해현장에서 평양시의 핵심당원들에게 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하여 펼쳐나설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호소에 화답해나신것은 결코 수도의 당원들만이 아니었다.

온 나라 인민이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피해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고 불과 몇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폐허를 가지고 인민의 보금자리들이 일터서는 기적같은 것이었다.

은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령도자에게 무한히 총정한 인민만이 이런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언제나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만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을 대를 이어 모시어 나라가 강대하고 인민이 위대하다는 것이 바로 공화국의 70여년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하기에 지금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맞이한 공화국인민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것은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온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총성다하려는 오직 한마음뿐이다.

이번에 승리의 위창한 진로를 밝힌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령이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의 전 과정을 보면 시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위인이신가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은 조신이 받아들여온 또 한분의 탁월한 령도자이시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공화국인민들은 그이의 령도를 총정하게 받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랑심과 그리로 받드는 인민이 되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총정한 인민이 되자!

이것이 바로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공화국의 참모습이고 국풍이기에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 하릅시다》는 오늘날도 래일도 영원히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